

‘나주 마한문화축제’ 유망축제에 선정

나주시의 대표축제행인 ‘마한문화축제’가 2019년 전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나주시는 지난 연말, 2019년 문화관광축제 및 도 대표축제 선정을 위해 전남도 축제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남도 대표축제 10선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유망축제 타이틀과 함께 시는 전남도로부터 보조금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 축제가 도 대표축제 분야에 선정된 것은 개척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그동안 대표축제 부재라는 오랜 고민을 해소하는 뜻깊은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마한문화축제는 2천 년 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왕국인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각종 퍼레이드 이벤트를 비롯한 공연 및 공연, 체험, 전시 등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콘텐츠가 특징이다.

특히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인 ‘천년 나주 마한 행렬’과 전통 추수 제례인 ‘마한 소도제’는 마한문화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 볼거리다.

마한시대 제천의식에서 찾던 춤을 재해석한 전국 규모 대회인 ‘마한인의 춤 경연’과 민속씨름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마한씨름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참

나주시 축제 중 첫 전남도 축제 분야에 선정... 대표축제 부재 고민 해소
보조금 1천만 원 지원받아... “전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발돋움 계획”



제4회 나주 마한문화축제서 원도심 천년나주마한행렬 장면.

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20여 부스에서 운영되는 마한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축제 등도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참여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다.

시는 지난 해 10월 19일부터 3일 간 열린 제4회마한문화축제에서 역대 최대 방문객인 16만5천여 명을 기록한 바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동안 지역대표축제 부재라는 우리 시의 묵은 고민을 말끔

히 해소해주는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하며 “호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잘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겨울철 별미 장흥 매생이가 새해 첫 홈쇼핑 방송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장흥 매생이, 새해 첫 홈쇼핑서 완판

50분간 3천건 매진 돼 1억 3천만원 매출 성과

겨울철 별미 장흥 매생이가 새해 첫 홈쇼핑 방송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정남진장흥매생이(주)는 연초 홈쇼핑을 통해 소개된 ‘동결 건조 매생이’가 매진되며, 판매 목표를 105% 달성했다고 밝혔다.

장흥 동결 건조 매생이는 최근 한 홈쇼핑 방송에서 약 50분 동안 방영됐다.

방송 결과 주문량이 당초 목표였던 3천건을 초과면서 1억 3천만원이 넘는 매출고를 남겼다.

매생이는 남해안 일부 청정해역에서만 자라는 해조류로 최근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매생이는 우유와 비교해 철분과 칼

슘 함량이 각각 4배와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결 건조 매생이는 제철에 생산한 매생이를 6차 세척과정을 거쳐 영하 40℃로 동결 건조해 생산한다.

국, 찌개, 라면 등 각종 요리에 완성 10초 전 넣어 주지만 하면 될 만큼 조리도 간편하다.

정남진장흥매생이(주)는 장흥군 유일의 매생이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지난 2017년 문을 열었다.

장흥군 관계자는 “홈쇼핑과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에 어민소득향상에 노력하겠다”며, “2019년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만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화순, 강소농 신규 경영체 모집 경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화순군이 중소규모의 농업 경영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육성하고 있는 강소농 신규 경영체를 오는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2월 11일 실시되는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강소농 경영체로 최종 선정된다.

강소농 육성 사업은 소규모 농가가 경영개선 등을 통해 부농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경영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의미하는 강소농에 선정되면 경영개선 실천 교육, 전문가 컨설팅, 자율 모임체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공고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화순=윤규진 기자 jin2001@

장성 ‘농촌재능나눔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

장성청년재능나눔회, 5천만원 지원받아

장성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사업’ 공모에서 장성청년재능나눔회가 2017년,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 나눔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촌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나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지원 대상은 사업추진능력이나 사업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활동계획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2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지원금은 단체의 역량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지원 될 예정으로, 장

성청년재능나눔회는 최고 금액인 5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장성청년재능나눔회’는 올해 ‘지역청년과 함께의 가치를 플러스하다’를 주제로 9개 기관·단체와 함께 다양한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축제 개선, 농촌다문화위기 가정극복 캠프를 운영하고,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주택조명개선, 주택가스누출탐지 시설 등 계획 중이다.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재능나눔 한마당’도 계속 이어간다.

재능나눔 한마당은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 각종 문화공연과 의료 및 이·미용서



비스, 마사지 등 제공하는 행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재능나눔 형식으로 참여했다.

장성청년재능나눔회 정철 회장은 “지난 2년간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행사를 열고, 재능 기부 단체나 개인의 참여도 많아 행사가 내실있게 진행됐다”며 “많은 주민들이 칭찬한 행사인 만큼 올해도 친근하게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담양, 농업분야 보조지원사업 주민 설명회

농업현장 소통 강화나서

담양군이 2019년도 농업분야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군’ 실현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담양군은 최근 3회에 걸쳐 창평면과 수북면, 담양읍에서 이장, 작목별 대표, 농업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농업분야 주요 보조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친환경농정과와 친환경영양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정원과, 농어촌공사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주요 지원사업 135개 사업에 대한 지침 설명으로 일반 주민들의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청결·위생 농업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대한 일방통행식의 지침 설명에 국한하지 않고 일선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의견 수렴 등 소통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막연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며 농업인들에게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구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ibest1@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